

유미가하마(弓ヶ浜)의 백사청송(白砂青松)

흰 모래와 푸른 소나무 숲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해안 풍경을 '백사청송'이라 일컫습니다.

사카이유메미나토 터미널에서부터 주고쿠(中国) 지방 최고봉인 다이센 산(1,729m)으로 이어지는 반도부의 이름은 활 해변이라는 뜻의 '유미가하마'라 합니다. 이름에 걸맞은 활 모양으로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펼쳐지는 약 20km 길이의 모래사장과 솔숲은 '일본 백사청송 100 선'에 뽑힐 만큼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합니다. 또한, 시마네 반도~유미가하마~다이센 산 일대는 예로부터 전해지는 기록서 '이즈모 노쿠니후도키(出雲国風土記)'에도 등장하여, 일본의 신 '야쓰카미즈오미쓰누노노미코토(八束水臣津野命)'가 신라를 비롯한 4 개국의 일부를 잘라 '구니코, 구니코(国来、国来 : 나라여 오라, 나라여 오라)'하며 땅을 끌어당겨 맞붙인 후 떠내려가지 않도록 밧줄(유미가하마)로 큰 말뚝(다이센 산)에 동여맸다는 '구니비키(国引) 신화'의 무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 심어진 아홉 그루의 곰솔은 매서운 겨울 계절풍이 부는 산인(山陰) 지방 특유의 기후 풍토 속에서 100 년 넘는 세월을 곳곳이 버텨왔으며, 예부터 이 지방에 전해지는 '운류(雲竜)' 전정법에 따라 정성 들여 관리되어 왔습니다. 가지가 복잡하게 구부러지다 끝을 늘어뜨리는 특색 있는 모습을 통해 '유미가하마의 백사청송'을 구현하며 산인 자연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카이미나토에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